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조사에 나선다

-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대상 피해조사도 시행
- 중소기업부는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입점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결과를 쿠팡 사태 범정부TF에 공유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월 8일(목)부터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www.kfme.or.kr)**에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사실 파악을 위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누리집 내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로 신고

최근 쿠팡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쿠팡 입점 소상공인 사이에서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이나 애로를 신고할 전용 창구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긴밀히 소통해 1월 8일(목)부터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동시에 소상공인 대상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쿠팡 사태 피해 신고센터’는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 개설되며,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피해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89곳) 소속 소상공인 대상으로 쿠팡 사태 관련 피해 조사를 진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한다.

중기부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 입점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들은 ‘쿠팡 사태 범정부TF’에 공유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책임자	과장	안원호 (044-204-7821)
		담당자	서기관	배주형 (044-204-7826)